

어떤 선물

현재 우리나라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즉 김영란 법에 의해 부정적인 청탁을 목적으로 한 선물이나 접대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으며, 우리 임직원들도 관련 법규를 철저히 이행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선물"을 주제로 월요편지를 쓰기에는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 다소 견해차이가 있을 것 같아 다소 부담스러워 망설여지지만 우리 임직원들의 인품과 식견으로는 제가 전달 드리고자 하는 뜻을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실 것이라 믿고 간단히 몇 자를 적어봅니다.

또한 여기서의 '선물'은 김영란 법에 준하여 행하여지는 선물을 의미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명절이나 생일과 같은 기념일을 앞두고는 가족이나 친한 친구들에게 어떤 선물을 고르면 좋을까 하고 생각하며 준비하는 일이 그리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다고 평소에 미리 미리 생각해 두기란 더더욱 쉽지 않습니다.

"겨울에 여름철에 쓸 밀짚모자를 사라"는 주식시장의 격언이 있다하지만 미리 예측하기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평소에 눈여겨 봐두었다가 때가 되어서 선물을 고르면 좋으려만 우리네 삶이 그리 넉넉하질 않기에 그 때 닥쳐서 고민 하는 게 보통입니다.

이번 추석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는 미리 미리 준비하지 못했는데 친척 동생으로부터 정성스런 선물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내게 꼭 알맞은 것을 받았기에 기쁨은 두 배가 되었습니다.



그 선물이 다름이 아니라 동생이 자기 받에서 수확한 참기름을 보내왔습니다.
배려와 정성이 가득한 맞춤선물!

거래선 선물도 맞춤서비스

명절 때에만 비싼 선물?
평소에 받는 사람의 취향을 고려해 정성스럽게 고른 선물
계절과일, 농수산물

선물은 무슨 때가 아닌 평소에 하는 것!!

자기 가까이 있는 것으로 선물



평소 그 동생이 남에 대한 배려를 아주 잘 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
너무 감사하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느 신문에선가 언뜻 봤는데 우리가 이제는 가장 터부시하는 단어가 되어버린
'접대'라는 말에 대해 앞으로는 '접대'보다는 '정성이 담긴 대접'을 하라는 글이 있었습니다.
접대가 돈을 쓰는 것이라면 대접은 정성스런 배려
즉, 상대방의 애로사항을 잘 처리해주는 것.. 정보를 주거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것..등등.

작은 선물이라도 고를 때 상대방의 처지를 생각하면서 마음을 담아 정성스럽게
준비한다면 그게 배려이고 대접인 것입니다.

남을 배려하는 맘이 곧 정성이고 그런 정성이 담긴 선물은 비록 자그마한 선물이라도
늘 배려가 들어가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일의 명주 한 필보다, 오늘의 무명 한 필이 더 낫다!!!

저지로부터 도서 선물
폰카로 찍어, 감사 문자 발송

시간남메디다 가끔씩 들춰서 읽어주세요

매년 가을 지인에게 감사 및 배려

부모님 농장에 열린 귤

지인들에게 선물할 때

수확 과정을 소개하는 글을 함께 보내 고객감동 유도



이러한 정성과 배려를 받고 어찌 지체할 수 있으랴?

그래서 와이프와 나는 rule을 하나 정했습니다.

혹시 내가 아는 가까운 분들로부터 선물이 배달되어 온다면 거기에는 소중한 정성과 배려가 가득히 들어가 있으니 발자마자 스마트 폰으로 찍어서 사진과 함께 보내주신 분의 이름을 나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기로...

나는 곧바로 사진과 성함을 확인하고 내가 받아도 문제가 없는 선물인지를 분별하여 부적합한 물건이면 정중한 거절의 메시지와 함께 반송을 요청하고 받아도 되는 선물이면 지체 없이 감사표시로 짧은 감사의 문자를 사진과 함께 보내주신 분께 보냅니다.

이것이 또한 그분에 대한 최소한의 나의 배려가 아닐까?

작은 선물이라도 서로의 배려로 마음이 이어진다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이 될 것입니다. 와이프와 난 이것을 "선물119"라 부릅니다.

바로바로 답장하기 (RIGHT NOW)

아내가 집에서 택배받을 --- 문자로 내게 사진 보내움 ----
나는 보내준 지인에게 재전송



고등학교 친구분.
김일준님이 보낸
선물입니다.

어느 먹구름에서 비가 내릴지 모른다.



Give and no-Take

Share and Share

우리가 삼다수 한 병 생산할 때 우리의 고객이 마실 선물을 준비한다고 생각한다면 여기에 우리의 정성과 배려가 녹아들어 함께 전달될 것이고 그 선물을 받는 우리 고객은 이 세상의 어떠한 것보다 가장 큰 선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무명 한 필이 내일의 명주 한 필보다 낫다'

이 말을 오늘도 마음에 새기고 되뇌어 본다.

